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02호

2023년 7월

십자가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2:1-19)	전 준 덕	3
요한계시록 듣기(50)	손 현 섭	14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연 창 호	22
천국살자와 기독교 화해	한 병 덕	31
사도 바울의 소전	최 정 일	44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4
나는 너의 편이다	최 제 현	56
거짓 선지자	조 규 철	69
무교회 여름 전국집회 계획 안내	편 집 실	74

성서신애사

십자가

우리 동네에는 교회와 절이 나란히 붙어 있다. 교회는 아주 작고 낡았는데, 그 옆의 절은 날로 번창하는지 건물이 늘어나고 리모델링 공사도 수시로 한다. 일요일이면 그 앞 도로가 주차장이 되길래, ‘작은 교회지만 신자 수는 많구나’ 했는데, 웬걸! 절을 찾아온 사람들이라 한다.

밤이면 불이 켜지는 그 교회 십자가 첨탑을 볼 때마다, 주께서는 저렇게 사람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건만, 왜 다들 엉뚱한 길로 찾아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기쁜 소식일 수 없다.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고 성서는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는가?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의 사례는 여기에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많다.

특히 나에게는 십자가가 죄를 쫓시고 들어오는 존재였다. 무서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 거짓과 위선을 가려주었던 덮개를 쓸어버렸다.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보고 말았다. 그때의 절망감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인이라면서도 불쑥불쑥 드러나는 본성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저 많은 사람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달려가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가는 곳은 행복과 위안만 줄 듯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도 다 피하게 해준다고 하니, 사람들의 눈에 그 길은 쉽고 넓은 꽃길이 분명하다. 꽃길을 두고 가시밭길로 올 사람, 누구일까?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하다. 고난도 있고, 불행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앙의 동지들이여, 인생의 끝까지 그 길로 같이 잘 걸어가십시다.” (손현섭)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거룩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룩한 복된 소식)

마 22:1-20

전 준 덕

22장 1절 :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Ἰησοῦς πάλι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ν παρ
αβολαῖς, (αὐτοῖς)λέγων,

사역 : 그래서 이에수스님은 또 저들에게 비유를 들어 대답하사 말씀하
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2절 : Ὁμοιώθη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ἀνθρώπῳ βασιλεῖ, ὅστις
ἐποίησε γάμους τῷ υἱῷ αὐτοῦ·

사역 :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배설한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있소

주) 1. ὁμοιώθη : ὁμοιόω(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
인칭(13:24절 참조).

2. γάμους : γάμος(결혼식, 결혼잔치, 결혼식장, 결혼)의 제2변화 명사
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대격.

3절 :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τοὺς δούλους αὐτοῦ καλέσαι τοὺς κεκλη
μένους εἰς τοὺς γάμους, καὶ οὐκ ἤθελον ἐλθεῖν.

사역 : 곧 왕은 자기 종들을 혼인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내보냈소. 그러나 오기를 꺼려하고 있었소.

주) 1. καλέσαι : κ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1:21절

참조).

2. κεκλημένους : καλέω(단축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대격(1:21절 참조)

3. ἤθελον : ἐθέλω(유음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 (2:18절 참조)

4. ἐλθεῖν : ἔρχομαι의 제2과, 능동태, 부정사(2:2절 참조).

4절 : Πάλιν ἀπέστειλεν ἄλλους δούλους, λέγων, Εἴπατε τοῖς κ
εκκλημένοις, Ἴδού, τὸ ἄριστόν μου ἡτοίμασα(ἡτοίμακα) οἱ ταῦροί μο
υ καὶ τὰ σπιτιστὰ τεθυμένα, καὶ πάντα ἔτοιμα· δεῦτε εἰς τοὺς γάμ
ους.

사역 :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초대받은 사
람들에게 전해라 자 내가 만찬을 준비했는데, 나의(큰) 황소들과 기름진
짐승들을 잡아 모든 것들을(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잔
치에 참가해 주십시오.” 하라

주) 1. εἴπατε : λέγω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과 명령법, 복수, 2인칭
(본절은 명령법). (2:5절 참조)

2. κεκλημένοις : καλέω(단축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여격(1:21절 참조).

3. ἄριστον : (조반, 점심식사, 만찬, (일반적으로) : 식사)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4. ἡτοίμασα : ἐτοιμάζ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3:3절
참조).

5. ταῦροι : ταῦρος(소, 황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주격.

6. σιπιστά : σιπιστός(기름진, 살찐)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7. τεθυμένα : θύω(희생하다, 죽이다, 잡다, 먹기위해 잡다, 경축하다, 제물을 받치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8. ἔτοιμα : ἔτοιμος(준비된, 예비된, 예비하고 있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9. τὰ σιπιστὰ τεθυμένα καὶ πάντα ἔτοιμα: (두절 모두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5절 : Οἱ δὲ ἀμελήσαντες ἀπῆλθον, ὁ(ὅς) μὲν εἰς τὸν ἴδιον ἀγρόν, ὁ(ὅς) δὲ εἰς(ἐπὶ) τὴν ἐμπορίαν αὐτοῦ·

사역 : 그러나 사람들은 거들떠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차 가버렸소.

주) 1. ἀμελήσαντες : ἀμελέω(ἀ+μέλω의 합성 동사 및 단축동사)(등한히 하다, 소홀히 하다, 무관심 하다, 부주의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2. ἀγρόν : ἀγρός의 단수, 대격(13:31절 참조)

3. ἐμπορίαν : ἐμπορία(ἐν+πορία의 합성어) (장사, 사업)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6절 : οἱ δὲ λοιποὶ κρατήσαντες τοὺς δούλους αὐτοῦ ὕβρισαν καὶ ἀπέκτειναν.

사역 : 그리고(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 무례하게 학대하며 죽이기까지 했소.

주) 1. λοιποί : λοιπός(남은, 남겨진, 나머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복수, 주격.

2. κρατήσαντες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9:25절 참조).

3. ὑβρίσαν : ὑβρίζω(거만한 태도로 피하다, 무례히피하다, 양심을 저버리고 대하다, 학대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자) 무례하게 행동하다, 거만하게 굴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7절 : Ἀκούσας δὲ ὁ(δὲ) βασιλεὺς ὠργίσθη, καὶ πέμψας τὰ στρατεύματα αὐτοῦ ἀπώλεσεν τοὺς φονεῖς ἐκείνους, καὶ τὴν πόλιν αὐτῶν ἐνέπρησε.

사역 : 그래서 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분노하였소. 그리고 자기의 호위병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시켰고 저들의 사는 동네까지 불태워 버렸소.

주) 1. ὠργίσθη : ὀργίζω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5:22절 참조).

2. στρατεύματα : στρατεύμα(군대, 부대, 호위병)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3. ἀπώλεσεν : ἀπόλλυμι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13절 참조).

4. φονεῖς : φονεύς(살인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5. ἐνέπρησε : ἐμπίπλημι(ἐν+πίπλημι의 합성동사) (사르다, 태우다, 불사르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8절 : Τότε λέγει τοῖς δούλοις αὐτοῦ, Ὁ μὲν γάμος ἑτοιμός ἐστι ν, οἱ δὲ κεκλημένοι οὐκ ἦσαν ἄξιοι·

사역 : 그때에 왕은 자기의 종들에게 말했소, 혼인 잔치는 잘 준비하였건마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않구나

주) 1. γάμος : γάμος의 단수, 주격(22:2절 참조).

2. ἑτοιμος : ἑτοιμος의 남성, 단수, 주격(22:4절 참조).

3. κεκλημένοι : καλέω(단축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주격(1:21절 참조).

4. ἄξιοι : ἄξιος의 남성, 복수, 주격(3:8절 참조).

9절 : πορεύεσθε οὖν ἐπὶ τὰς διεξόδους τῶν ὁδῶν, καὶ ὅσους ἂν (ἐὰν) εὔρητε, καλέσατε εἰς τοὺς γάμους.

사역 : 차라리 너희는 길의 출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주) 1. διεξόδους : διέξοδος(διά+ἐξοδος=ἐκ+ὁδός의 이중 합성어) (출구, 입구, 길목, 빠져나가는 길)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대격.

2. καλέσατε : κ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1:21절 참조).

10절 : καὶ ἐξεληθόντες οἱ δοῦλοι ἐκεῖνοι εἰς τὰς ὁδοὺς συνήγαγον πάντας ὅσους(οὓς) εὔρον, πονηροὺς τε καὶ ἀγαθοὺς· καὶ ἐπλήσθη ὁ γάμος ἀνακειμένων.

사역 : 그래서 그 종들은 길로 나간 후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모두 초대했소. 그러자 혼인 잔치 마당은 손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소.

주) 1. συνήγαγον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 (2:4절 참조)

2. τε καί : (같은 종류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 (~과 ~을, ~과 ~의)

3. ἐπλήσθη : πλήθω(채우다, 성취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4. ἀνακειμένων : ἀνάκειμαι(ἀνά+κεῖμαι의 합성동사) (눅다, 기대다, 식탁에 기대어 앉다, 식사하다, 식사 자리에 앉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

11절 : εἰσελθὼν δὲ ὁ βασιλεὺς θεάσασθαι τοὺς ἀνακειμένους εἶδεν ἐκεῖ ἄνθρωπον οὐκ ἐνδεδυμένον ἔνδυμα γάμου·

사역 : 그런데 왕은 식사 자리에 앉은 손님들을 살피고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았소.

주) 1. ἀνακειμένους : ἀνάκειμαι(ἀνά+κεῖμαι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대격(22:10절 참조).

2. ἐνδεδυμένον : ἐνδύω(ἐν+δύω(δύνω도 같음)의 합성동사) (입다, 착복하다 (중) 옷을 입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단수, 대격.

3. ἔνδυμα(ἐν+δύω의 합성어) : (옷, 의복, 외투, 겹옷)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12절 :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Ἐταῖρε, πῶς εἰσῆλθες ὧδε μὴ ἔχων ἔνδ

υμα γάμου; Ὁ δὲ ἐφίμωθη.

사역 : 그래서 왕은 그에게 말했소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소?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문채 대답을 못하였소.

주) 1. ἐταῖρε : ἐταῖρος의 단수, 호격(11:16절 참조)

2. ἐφίμωθη : φιμώω(단축동사)(달아매다, 재갈을 물리다, 입에 망을 씌우다, 잠잠하다, 말못하다, 대답을 못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13절 : τότε εἶπεν ὁ βασιλεὺς(εἶπεν) τοῖς διακόνοις, Δήσαντες αὐτοῦ πόδας καὶ χειῖρας, ἄρατε αὐτὸν καὶ ἐκβάλετε(αὐτὸν) εἰς τὸ σκότος τὸ ἐξώτερον· ἐκεῖ ἔσται ὁ κλαυθμὸς καὶ ὁ βρυγμὸς τῶν ὄντων.

사역 : 그 때에 왕은 일꾼들에게 말했소. “저 사람의 발과 손을 (잘) 결박하여 그를 데리고 나가 저 먼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그는 거기서 애통함과 이를 갈이 있을 것이다.

주) 1. διακόνοις : διακόνος(διά+κόνέω의 합성어)의 남성, 복수, 여격(20:26절 참조).

2. δήσαντες : δ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12:29절 참조).

3. ἄρατε : αἴρω(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4:6절, 11:29절 참조).

4. ἐκβάλετε : ἐκβάλλω(ἐκ+βά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제2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7:4절 참조).

5. ἐξώτερον(ἐξω의 비교급) : ἐξώτερος(더 먼 곳에, 더 바깥에)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단수, 주격과 대격(εις의 전치사 지배를 받아 대격으로 쓰이고 있음)

6. κλαυθμός : (울음, 통곡, 애곡, 애통)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 명사의 단수, 주격(13:42절 참조).

7. βρυγμός와 ὀδόντων : (13:42절 참조)

14절 : πολλοὶ γὰρ εἰσι κλητοί, ὀλίγοι δὲ ἐκλεκτοί.

사역 : 그러므로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소이다.

주) 1. κλητοί와 ἐκλεκτοί : (20:16절 참조)

2. ὀλίγοι : (15:34절 참조)

15절 : Τότε πορευθέντες οἱ Φαρισαῖοι συμβούλιον ἔλαβον ὅπως αὐτὸν παγιδεύσωσιν ἐν λόγῳ.

사역 : 그때에 파리사이오스인들은 떠난 후, 저들은 이에수스님을 어떻게 말로 함정에 빠지게 할까? 해서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주) 1. πορευθέντες : (2:8절 참조)

2. συμβούλιον : (σύν+βουλύε의 합성어) (12:14절 참조)

3. παγιδεύσωσιν : παγιδεύω(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함정에 빠뜨리다, 올무에 걸리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

16절 : καὶ ἀποστέλλουσιν αὐτῷ τοὺς μαθητὰς αὐτῶν μετὰ τῶν Ἡρωδιανῶν, λέγοντες, Διδάσκαλε, οἶδαμεν ὅτι ἀληθὴς εἶ, καὶ τὴν ὁδὸν τοῦ Θεοῦ ἐν ἀληθείᾳ διδάσκεις, καὶ οὐ μέλει σοι περὶ οὐδε νός, οὐ γὰρ βλέπεις εἰς πρόσωπον ἀνθρώπων·

사역 : 그래서 파리사리오스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로디아노이 당원들과 함께 이예수스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과도 거리를 두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도 보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주) 1. ἀποστελλουσιν : ἀποστέλλω(ἀπό+στ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16절 참조)

2. διδάσκαλε : διδάσκαλος의 단수, 호격(8:19절 참조)

3. οἶδαμεν : οἶδα의 복수, 1인칭(6:8절 참조).

4. ἀληθής : (참된, 진실한, 옳은, 정직한, 숨김없는, 믿음성 있는, 신임할 만한, 진짜의)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5. ἀληθεία : ἀληθεία(진실, 참, 진리, 실체, 올바름, 믿음성)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여격.

6. μέλει : μέλω(비인칭동사를 및 유음동사) (~은 ~의 관심거리이다, ~에게 ~이 관심거리이다, 걱정하다, 마음을 쓰게 하다, 염려가 되다, 꺼리게 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여격과 대격을 취함).

17절 : εἶπε οὖν ἡμῖν, τί σοι δοκεῖ: ἔξεστι δοῦναι κῆνσον Καίσαρι ἢ οὐ;

사역 :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십시오.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옵니까? 합당치 않으십니까?

18절 : Γνοὺς δὲ ὁ Ἰησοῦς τὴν πονηρίαν αὐτῶν εἶπε, Τί με πειρ

ἀζετε, ὑποκριταί;

사역 : 그러자 예수스님은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위 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어찌 나를 시험하오?

주) 1. πονηρίαν : πονηρία(악, 악함, 악독, 추악)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2. πειράζετε : πειράζω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4:1절 참조).

19절 : ἐπιδείξατέ μοι τὸ νόμισμα τοῦ κήνσου. οἱ δὲ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ῷ δηνάριον.

사역 : 여러분은 내게 세를 내는 화폐를 보여 주시오. 그러자 저들은 이 예수스님께 한 데나리온을 드렸습니다.

주) 1. ἐπιδείξατέ : ἐπιδείκνυμι(ἐπί+δείκνυμι의 합성동사) (보이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증명하다, 증거를 주다, 나타내 보이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

2. νόμισμα : (주화, 법적화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대격(본절은 주격)

3. προσήνεγκαν : προσφέρω(πρός+φέρ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4:24절 참조).

20절 :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Τίνος ἡ εἰκὼν αὕτη καὶ ἡ ἐπιγραφή;

사역 : 그러자 예수스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상과 표식은 누구의 것이오?

주) 1. εἰκών : (초상, 현상, 모양, 모습, 닮음, 유사함)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2. τίνας : τίς(의문, 대)의 남성, 단수, 소유격(3:7절 참조).

3. ἐπιγραφή(ἐπί+γραφή의 합성어) : (비문, 제명, 명제, 표식, 표제, 좌표)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 혹시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준덕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것입니다. 연락처 : 010-4622-8903)

【6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 7줄	ἡγγιζω의	ἐγγιζω의
3쪽 18줄	네게로(나에게)	내게로(나에게)
4쪽 11줄	ἀγάγετέ	ἀγάγετε
5쪽 9줄	있구나(그 왕은).	있구나(그 왕은)
6쪽 12줄	ἐπεκάθισαν	ἐπεκάθισεν
7쪽 6줄	στρώννύω의 미완,	στρωννύω의 미완,
14줄	προάγω	προάγω
20줄	Ῥσαννὰ	Ῥσαννὰ
8쪽12줄	갈릴라이아스의	갈릴라이아의
10쪽7줄	저들의	저들을
10쪽10줄	ἐν τῷ ἱερῷ.	ἐν τῷ ἱερῷ.

요한계시록 듣기 50회

(마침내 전사로 서신 메시아)

손 현 섭

11-16.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말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말 위에는 '신실',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앉았고,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몸에 있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었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다.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친히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옷과 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었다.

17-18. 나는 또 해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하늘의 모든 새에게 큰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과, 장군과, 힘센 자와,
말과 거기 탄 자와, 모든 자유인, 종,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19-21.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에 맞서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짐승과 따르던 거짓 예언자 함께 붙잡혀서 불바다에 던져졌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을 미
혹했던 자였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다.
남은 자들은 흰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고,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배부르게 먹었다. (19:11-21)

1. 들어가며

19장 앞부분은 바빌론 몰락 후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였다. 바빌론의 심판, 아멘 할렐루야의 찬양,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부의 단장, 잔치에 초대받는 일, 천사를 경배하는 요한 등 일련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펼쳐졌는데, 등장인물은 다양했으나 그 장면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천상의 장면은 이후에는 더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인류의 종말이 휘몰아치듯 다가온다. 그리하여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전개될 것이며, 21-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하늘나라에 대하여 보여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

2. 본문 살피기

오늘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1-16절, 드디어 적과의 싸움에 나선 그리스도의 모습,

17-18절, 천사의 승리 예고, 적의 사체 처리를 위해 새들을 불러모음.

19-21절 승리.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따르는 자들의 최후.

1) 하늘 군대의 장수 그리스도

요한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본다. 열린 하늘에 흰 말이 있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분을 보았다. 말 위에 앉아 있다! 말은 본래 전쟁을 상징하는데,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건 출전할 준비를 마쳤다는 암시이다.

요한이 앉아 있는 분을 소개하기를, 이름이 ‘신실과 진실(πιστος και αληθινος)’이라 하였다. πιστος는 흔히 믿음으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미쁘다(믿음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αληθινος는 진실함을 뜻하

니, 신실과 진실은 말에 탄 이의 성품이라 볼 수 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구하고, 부정으로 영화를 누리는 자를 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장수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이는 계시록 처음(1:14)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데 모습이,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고 이미 언급했었다. 불꽃 같은 눈은 용맹함, 모든 것을 꿰뚫어 봄(全知)을 나타낸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흰말 탄 장수의 머리가 하나인데, 많은 관을 썼다고 한다.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지 않으나, 머리에 쓴 어떤 장식이 매우 많다는 말일 게다. ‘많은’이라고 번역된 ‘^{플루스}πολυς(^{플라}πολλα)’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여서, 앞(12-13 장)에서 용의 머리 일곱 개 장식이 있었고, 짐승의 뿔 열 개의 장식이 있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우리 주님은 잠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힘 있는 장수라는 뜻이다. 주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많은 관’이 시사하고 있다.

이어지는 말은 다소 미스터리하다. ‘그분만 아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남들은 모르는 이름이라는 말에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절대적 존재라는 뜻이 들어있다.¹⁾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이름에 대한 힌트가 계속 제공된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그리고 ‘주의 주’라는 이름이 차례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도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쯤 되면 ‘자기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아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그분이 누구신지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그분의 옷차림이다. 장수는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 군대의 최고

1) 사다케 아키라, 요한의 묵시록 하, 557쪽.

지휘자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연함과 비장함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학자들은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다, 순교자들의 피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대적자의 피다 등등. 여기서는 누구의 피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린양으로 묘사될 만큼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마침내 하늘의 장수로서 등장하여 그 용맹과 결단을 보여주기 위한 옷차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또 의외의 착장을 한 무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뒤에 선 하늘의 군대이다. 역시 그들도 백마를 타고 있다.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백의 린넨(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늘의 군대라는 상징성을 나타낸다는 점은 있으나, 전쟁에 임하는 군복으로서는 의아한 옷차림이다. 다행히도 이렇다할 전투 장면 없이 그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 백마부대는 그저 말 위에 앉아있기만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 한편, 이 군대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천사냐, 순교자냐, 성도들이냐 의문이 많다. 대부분 천군 천사라는 표현대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시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 그분의 입에는 만국을 치는 칼이 있고, 손에는 자비 없는 쇠지팡이, 발로는 포도주 틀을 짓밟는 맹렬한 진노가 있어 그리스도가 가진 강력한 힘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만국을 치고,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강한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치며(시 2:9)²⁾ 포도주 틀에서 발로 짓밟아 으깨듯이 그들을 처리하리라는 무서운 선언이다.

그런 가운데 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름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역시 ‘누구도 알지 못한 이름’과 같이 어떤 의미

2) 네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시 2:9)

이름이라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다만 여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를 뜻한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 본체시며, 예수 자신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 같이, 또한 말씀으로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창조주의 시종일관한 원리를 보여준다.

이어서 마지막 명칭이 등장한다. 왕의 왕 주의 주. 이 이름은 그분의 옷과 다리에 쓰여 있었다. 말에 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옷이며 다리였을 것이다. 이 이름은 앞(계 17:14)에서 ‘어린 양은 주의 주이며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악의 무리를 물리칠 장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는 이로써 심판의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2) 전쟁 승리 예고

이어지는 장면은 전투가 아니라 잠시 다른 상황을 보고한다. 한 천사가 높은 하늘의 해 안에 서서³⁾ 큰 소리로 외친다.

“새들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과, 장군과, 힘센 자와 말과 거기 탄 자와, 모든 자유인, 종,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전쟁에 패한 자들의 사체 처리를 위해, ‘새들아 모여라’ 하는 엉뚱한 듯한 이야기다.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자신만만한 선포이다. 천사는 이 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 살육의 현장에서 죽은 자의 살을 먹으라고 외치는 중이다. 그런데 시체의 주인이 왕들과 장군들, 힘센 자와 말과 거기 탄 자와 자유인과 종, 작은 자와 큰 자이다. 하늘의 3위를 훔쳐 냈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빠져있다. 아니다, 그들은 더더욱 예외가 될 수 없다. 차례로 살피보기로 하자.

3) 천사가 해 안에서 말한다는 건 공중의 새들을 부르기 위해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다.

3) 최후의 전쟁

장면은 다시 천군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다. 흰 말을 타신 분과 하늘의 군대가 도열해 있는 맞은편에 적군도 모여 있다. 그들은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이끄는 군대이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허무하다. 아마도 싸움이 순식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일까? 짐승은 붙잡혔고,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다.

거짓 예언자!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 공들여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였다. 이 거짓 예언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으니, 제2의 짐승이라 할 수 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마 장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새들이 사체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다. 적대자들의 비참한 말로이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다.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너무나 다른 잔치였다.

사실 이 전쟁은 16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강에 쏟아 길이가 열렸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더러운 영 셋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었다. 그 명령을 따라 세상 왕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군대를 집결시켰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었다. 오늘의 이 부분이 바로 그 사건의 연속이라는 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3. 맺으며

승리를 쟁취하며 진군하는 백마의 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일찍이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던 주는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오실 왕은 남루했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승리자로서 백마 위에 당당히 결연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장수는 든든하고 진실하다. 그분은 구약의 약속(사 11:5)⁴⁾대로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신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 피로 물든 옷, 입에서 나오는 검, 손에 쥔 철장, 맹렬한 진노는 왕이면서 심판자인 그리스도의 임무를 보여준 것이다.⁵⁾

하늘의 많은 무리, 즉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뒤를 따르는 천사들마저 범접할 수 없는 순백의 군복을 입은 기마대이니 상상만 해도 아우라가 느껴진다. 용이나 짐승에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장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땅의 왕들도 군대를 모아 싸우기 위해 진을 쳤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었던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순식간에 잡혀 불못에 던져졌고, 이어서 그 남은 자들까지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거짓 예언자에 미혹되어 짐승을 따랐던 그들 중 누구도 용서받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의지까지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이다. 우리 인생 몇십 년이 생명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장밋빛이라면 참 좋을 것이다. ‘하늘

4)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사 11:5)

5) NTD 신약성서주해, 요한의 묵시록, 198-200쪽.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여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라 믿는 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천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완성'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에 대하여, 아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대로 내리꽂히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잘 느끼지 못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여, 교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Jesus loves you'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한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는 성서에나 나오는 신화 같은 거라고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이 진노하심은 리얼이며, 반드시 다가올 사건이다.

그래서 어떤 주해에서는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In your study and teaching, do not emphasize God's mercy to the exclusion of his wrath.)⁶⁾

6)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Revelation, 233쪽.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연 창 호

앞장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60장부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어 주의 백성을 괴롭히더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역사속에 계시하고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둠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네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이 네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사60:1~3).

○ 빛의 근원은 해와 달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빛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므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

나게 됩니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과거의 시온은 바빌론에 의해 패망했지만 이제 다시 여호와와의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내가 심은 가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곳, 즉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 성령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됩니다. 그 결과 여호와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과 세계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자연히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사자(使者)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빛으로 나아오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빛의 사자인가요. 한국 교회는 빛의 반사체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는 아닌가요.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물려들 것이며

멀리서 네 자녀도 모여들 것이다.

그때 너는 이것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여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부와 모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네 땅을 덮을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사 60:4~6).

○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처럼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난은 끝이 나고 영광의 때가 되어 사방에서 민족들이 몰려 들고 멀리 나가 있던 아들과 딸들이 시온으로 달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이제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온갖 부와 재물이 세계의 빛이자 중심지인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디안과 에바는 아라비아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며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이동수단은 낙타였습니다. 낙타가 땅을 덮는다는 것은 무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스바는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의 나라로 금과 향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남아라비아의 스바족이 사는 예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토록 이방인들마저 여호와의 찬양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양떼와 느바웃의 수양이

너에게 끌려와 여호와와 제단에 바쳐질 것이며

그는 자기 성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구름처럼,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비둘기처럼,

미끄러지듯이 달려오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것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고 오는 배들이니

그들은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여호와와 이름 높이며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다(사 60:7~9).

○ 게달과 느바웃은 이스라엘 남쪽 아라비아 부족의 이름으로 그곳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구름같이, 비둘기 같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평화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와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를 타고 와서 금과 은을 예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 배는 개역 성경에선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부의 타르수스를 말하며 그곳은 은, 철, 주석, 납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온 세상의 사람과 재물이 시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자기 백성 또한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외국 사람들이 네 성벽을 재건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분노하여 너를 벌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
이방 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기 위해
네 성문은 항상 열려 밤낮 닫히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아주 패망하고 말 것이다(사60:10~12).

○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들 힘으로 재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노하여 벌을 주었으나 이제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밤낮 열려있다는 것은 외적이 침입하지 않는 평화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나라는 아주 패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사야의 하나님은**

유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이자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이사야에서 최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유일신은 의와 자유를 그 발아래 두는 신이지 결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거나 지배하고자 인간을 그 발아래 두는 제국의 신은 아닙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소나무와 잣나무와 회양목이
너에게 운송되어 너를 재건하고
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니
내 성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너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사60:13~14).

○ 레바논은 크고 우람한 소나무, 잣나무, 회양목,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런 최고의 나무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쓰여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했던 나라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며 이제 시온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이사야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비록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네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세계의 열강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너를 보살필 것이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사60:15~16).

○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몸과 맘이 성전입니다.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시온을 보살펴 줍니다. 역사의 근원에는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섭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류의 세계 평화 추구를 인본주의라 비방하는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잡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무리입니다(그들이 내세우는 신본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을 빙자한 잡령의 술수입니다). 인류의 평화 공존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금으로 너의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너의 철을,
놋으로 너의 나무를,
철로 너의 돌을 대신할 것이며

평화를 너의 관리로,
의를 너의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네 땅에 폭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니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며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사60:17~18).

○ 금과 은뿐만 아니라 놋과 철 등 귀중한 광물을 다 주시겠다는 것은 새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란과 전쟁 대신에 평화가 올 것이고, 불공평 대신에 공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회의식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평화와 공의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황폐와 파멸을 일으키는 폭군이 없어지는 새 시대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빛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는 오늘날의 교계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자인가요, 아니면 잡령에 사로잡힌 어둠의 무리인가요. 성벽은 우리를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에선 찬송 소리가 영원할 것입니다. 시온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맘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네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인 네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고
네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사60:19~20).

○ 매일 떠오르는 해와 달은 지기 마련이고 이지러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해와 달이 없을 때 어둡습니다. 자연의 해와 달은 이처럼 늘 밝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슬픔은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고생스러워도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한다는 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투 노력할 때 몰입하게 되고, 자나 깨나 몰입하는 순간에 창조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기들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사60:21~22).

○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라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 보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심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겨자씨 같이 약해 보이거나 우뚝 솟은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은 가족에서 출발하나 집단을 이루고 결국 강국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송두용 선생의 ‘천국을 살자’와 ‘기독교와 화해’ 소감

-속초 이귀성 선생댁 가정모임에서-

한 병 덕

송두용 선생님의 글을 읽던 중 ‘천국을 살자’(1974. 9. 성서신애 194호)라는 글과 ‘주기도문’의 ‘용서’관련 말씀인 ‘기독교와 화해’(‘성서신애’ 162호, 1971년 12월호)라는 글과 관련, 적절한 사례로 생각되는 사건들이 떠올라 그것을 오늘 제 말씀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송두용 선생의 ‘천국을 살자’라는 글을 인용합니다.

천국을 살자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또한 아무리 좋게 여기려고 하여도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일들을 솔직히 말한다면 ‘여기가 지옥이로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실은 내가 모든 면에서 곧 정치, 경제, 문학 그 밖에 어느 면이나 뒤떨어진 낙도에서 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그래서일까? 예를 든다면, 가끔 음독 자살자가 생기며 술과 담배로 간장이나 폐의 고장으로 죽기도 하고 농약 중독으로 죽거나 아니면 몹시 신음하는가 하면 옥동자를 낳아서 기뻐할 사이도 없이 며칠이 못 되어 어느 틈에 죽는(대개 파상풍인 듯) 실정이니 어찌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지옥을 연상하지 않으랴? 무의촌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한심하고 비참하구나. 그러나 결코 돈이 없어서도 아니며 무의촌을 탓할 것도 아니다(3시간이면 인천에 갈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몰상식, 그렇다, 무지와 고집과 미신에 사로잡힌 까닭이 아닐까? 그러나 도회지는 어떤가? 강도, 깡패, 사기, 도박, 살해, 그리고 문

명의 혜택(?)인 가지가지의 공해 등등. 과연 무섭지 않은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만끽하는 일본을 보라. 지상천국이라는 덴마크를 보라. 더욱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소련을 보라. 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물론 우리 나라의 실정, 현실도 또한 똑같은 형편이지만 이래도 지옥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긴 말 할 것 무엇이냐? 지옥이 따로 없다.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실낙원은 옥살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무엇보다도 우선 낙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찌 낙원을 회복할 수 있으랴? 종교, 철학, 과학 등등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는 것지만, 그런 것으로는 언제까지나 도로아미타불에 불과하지 결코 전진도 해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세계 역사가 뚜렷이 증명하고도 남는 것을 누가 부정할 것이냐? 사람들이여, 제발 이상국, 유토피아,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면서 떠드는 그 노력, 수고, 열심을 돌려 보자! 에덴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자. 곧 믿어보자는 말이다. 세상은 어디나 지옥이기는 일반이다. 어딘들 천국을 만들 수 있으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옥 속에서 천국을 살자는 말이다.** 그것은 오직 믿는 일뿐이다. 바로 믿어 보라. 곧 천국은 오리라.”

형편이 좋고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비관적이나?’고 반박하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눈’, ‘들을 귀’에 의해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정한 가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송 선생님처럼 “경제의 고도성장을 만끽하는 일본”이나 “지상천국이라는 덴마크” 사회나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소련”이나 “강도, 깡패, 사기, 도박, 살해가 비일비재한 우리”의 형편이나 그리스도가 보시는 본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게 지옥이라는 데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나 인간은 주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거기서도 천국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악의 지배를 속히 종식시키고 세상에 당신의 지배를 확립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종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기독교인의 간구가 되어야 하고 그 소망의 성취를 믿고 간직함으로써 그 소망에 의해 불굴의 신앙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는 이미 임하여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는 세상 끝날, 구원사의 최종적 종말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 지배가 빨리 실현되기를 갈망하라는 말씀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의 삶은 가능해졌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 아버지가 지배하시는 영역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신앙 위인열전’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그 점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의 핵심을 요약하여, “**그들은 약속을 받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무조건 떠나라고 명하면서 그 대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새 정착지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모

두 해당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로, 말하자면 장막을 치고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았고 이점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도 같았습니다. 반드시 가족의 목초지를 찾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가 34장에 나오는 세 겹 땅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제로 욕보이고 야곱 아들들에 의해 몰살당한 세겹성의 성주 ‘하몰’에 관한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들도 목축업자들이지만 목축을 위한 떠돌이 삶이 아닌, 가나안의 정착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에 대해 답할 때 그가 살아온 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창 47:9)

그는 외삼촌의 집 하란에서 외삼촌의 만류에도 가솔들을 이끌고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았는데 생활면에서는 상당한 재산도 모으고 불편함이 없었지만 특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내면적으로는 이방인이 되어 나그네로 살아온,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속의 땅임에도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산 것은 그 내면에 그 영

흔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향이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태어나 성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보이는 실제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개의치 않았다는 요지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 소망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 하나님의 도성, 말하자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점에서 신약시대의 관점으로는 믿음으로 천국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외롭고 고단했겠지만 내적으로는 세상이 모르는 소망 성취의 기쁨을 간직한 삶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교회에서 노평구 선생님이 소개하는(1958. 5. 성서연구 제 75호) 금석호 선생의 삶을 세상에서 천국을 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 선생님의 글에 의하면 금선생님은 ‘청년 시절에는 상업계에서 전도양양했고’, ‘3.1 운동의 격량을 거친 민족운동가’였으며, ‘장년 시대에는 교회의 정력적인 전도자’였으나 ‘형식적인 교회 신앙의 결론으로 교회의 모든 직책을 떠나 조용히 일개 평신도로서 하나님 사랑, 청빈, 성서애독 가운데 농사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노 선생님과 교유하던 당시는 “70이 넘으신 고령으로 그를 돕던 아들은 육이오에 징집되어 가서 홀로 2천 평 되는 농토를 경작하고, 밤에는 성서를 줄줄 외울 만큼 성서 읽기에 열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 선생님의 삶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노평구 선생님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깡이를 들고 밭에 서신 신앙의 노장(老將)의 얼굴에는 언제나 만면 웃

음이 떠돌고 있었다. 한번은 선생이 ‘오늘도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한바탕 웃고, 혹시 누가 보지 않았나 하여 사방을 둘러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불신의 나는 비로소 선생의 그 위대한 기쁨의 원천을 알고 새삼스럽게 선생께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이야말로 외적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실로 현세에서도 천국 삶을 사신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송두용 선생님의 두 번째 글, ‘기독교와 화해’에 대한 소감입니다. 주기도문 중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의 해석 1편과 역시 제게는 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덧붙입니다. 먼저 송 선생님의 글입니다.

기독교와 화해

“기독교는 주기도에 압축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기도를 시시각각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주기도의 근본 또는 본질의 중심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긴급하고 귀중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뜻에서 주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마 6:12)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도무지 주기도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어떻게 감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주기도를 외우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학자 간에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갖가지 자기 나름의 설명이 있겠

지만 아무도 속 시원한 설명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같이 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말로 해 보지만 그것은 무리요 어색하기 짝이 없다.

요즈음에 새로 출판된 친구교 공동번역에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여서 대단히 알기 쉽게는 되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맛이 적은 것같이 생각된다. 죄를 ‘잘못’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잘못은 없지만 몹시 가볍게 여겨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할 죄는 너무도 크고 많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에 곧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마 6:14,15)는 말씀이 있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한다는 엄격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에게는 그런 용기도 사랑도 없으니 어찌하랴?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 예수를 믿게 된 일이 곧 용서받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덮어놓고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 우물쭈물할 것은 없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하신 주

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따질 것 없다. 힘들 것도 없다. 나는 기계처럼 주의 명령에 따라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까닭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 어렵도 없는 일이다. 내가 무엇이관대 감히 누구의 아무리 작은 죄라 하여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랴? 그러나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역사하시나니 무엇인들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 있으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함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밖에 아니 되나니 일의 성불성을 따지지 말고 오직 힘써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온 세상에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다. 기독교는 십자가교 즉, 속죄교다. 속죄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다.”

주기도문 중 다섯 번째 간구인 ‘용서’의 문제인데 본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너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는 우선 자기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 전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만은 용서가 안돼’라는 분노의 철심이 남아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으므로(마 5:44-45)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청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의 동료 인간에 대한 용서를 전제로 하는 이 간구는 자신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할 만큼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송 선생님은 용서와 화해가 오직 신앙으로만 되는 문제, 깊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까닭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내가 무엇이관대 감히 누구의 아무리 작은 죄라 하여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랴? 그러나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역사하신다.”가 그 말씀입니다.

성서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중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워치만 니⁷⁾도 ‘원수 사랑’에 관해 역시 송선생님과 같이 인간의 일이면서 본질상 성령의 역사인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인용합니다. 문답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문: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워치만 니의 답변: 당신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며 영원히 원수를 미

7) 워치만 니(Watchman Nee, 1903~1972), 중국 본명 니토생(倪柝聲): 19세기초 중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중국 공산당의 박해에 의해 투옥 옥사한 순교자.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생활’ 등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술가. 중국과 동남아 각지에 기독교 특정교파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교회’들을 세움. 교파교회 일부로부터 이단논쟁이 있기도 하나 그의 대체적인 복음내용은 기독교계에 널리 인정되고 20여권의 저서들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1952~1972년까지 20년에 걸친 수감생활 중 1972년 순교.

소천 되기 전 그는 베개 밑에 종이 한 장을 남겨 놓았는데, 매우 떨리는 필체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도라. 니토생.”이라는 고백이 남겨졌다고 함(위키백과 ‘워치만 니’편 중에서)

워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들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법(犯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주님 또한 산상수훈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데,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요, 둘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러한 명령들을 너희는 행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살아서,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내가 설교를 잘했다면 영광을 나에게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이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십니다. 하

나님의 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마음 안에 살도록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당신을 대신하여 대적을 사랑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한편 ‘용서 및 화해’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감동적인 사례로서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지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사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알다시피 남아프리카의 대다수 인종인 흑인들이 백인 지배자들에 의해 구금과 고문, 살해되는 극악한 폭정을 보다 못해 동족 편에 서서 백인 정부에 항거했다고 국가 반역죄로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고 44세에 투옥되어 27년간을 강제노동 등을 당하면서 옥살이를 하다가 백인 정권이 비등하는 국제 여론에 굴복, 만델라를 석방했는데, 청년으로 들어갔다가 71세 노인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후 대통령이 된 후 박해자들에 대한 그의 행동이 역사상 용서의 전범(典範)이 될만한 사례로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그가 출옥할 때 수 많은 기자들이 교도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27년을 혹독한 환경으로 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늙었지만 생기있고 웃음 띤 얼굴로 감옥문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본 기자들이 놀라서 그 원인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제게 있어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또 그의 용서의 신념에 대한 유명한 어록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

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자유롭게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는 또 “증오는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는 그 독약이 적들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는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석방된 후 백인 정부로 하여금 흑인차별법인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폐지케 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제 자기를 27년간이나 감옥에 가둔 전직 대통령과 판검사 등, 권력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에게 부모 친척, 친지를 잃은 사람들이 복수를 외치는데도 ‘진실화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잊지는 말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자”고 달라고 보상해주면서 용서와 화해로써 기어이 흑백 화해를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아공이 옛날부터 백인 통치를 받으면서 흑인 국가 중에서는 기독교세가 강한 국가이고, 그가 젊어서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결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인권운동에 헌신했고, 위 기자들 질문의 답변을 보면 그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위인 만델라의 이 감동적인 정신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데에는 용서에 대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즉 만델라의 말처럼 내게 죄 지은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타인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 용서는 내 안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증오심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죄 없는 자신의, 거의 일생을 망쳐놓았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얽매어있다면 욕은 해방되었지만, 정신은 증오심이라는 감옥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용서는 누구보다 나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의미를 말씀했는데, 저는 여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우선 자신이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용서 받는 상대방 못지 않게 증오심에 차 있는 나 역시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사랑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과 강제노동을 초인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감동케 한 관용의 정신에서 우리는 그 역시 천국을 산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고데⁸⁾의 로마서 개론

사도 바울 소전(小傳)

최 정 일

I. 서론

<로마서>는 그 저자인 바울 사도의 개인적 체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로마서>에서는 두 번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롬 2:16 ; 16:25]

따라서 <로마서>의 공부는 <로마서>를 쓴 필자에 대한 연구를 철실하게 요구한다. 바울 사도의 『신약성서』 중 ‘다른 편지’들은 바울 사도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삶’ 그 자체이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세 기간으로 나뉜다.:

- (1)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삶,
- (2)바울 사도의 회심,
- (3)그리스도신자이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

II. 회심 전의 바울 사도(=사울)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즉 시리아와 소(小)아시아의 경계지역에서 태어났다.[행 21:39 ; 행 22:3]

바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롬 11:1 ; 빌 3:5]

바울 사도의 이름인 ‘사울’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름에서 따왔을 것이다.

바울의 부모는 바리새파에 속했다.[행 23:6]

8) 고데 Frederic Louis Godet (1812-1900년)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는 유다인들’보다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로마시민권자로서 가졌던 이 우월한 지위가 바울 사도의 ‘이방인 사도’로서의 복음전도의 일생에 미친 영향력은 바울의 전도여행 중 여러 군데서 명백히 볼 수 있다.[행 16:37 ; 행 22:25-29 ; 행 23:27]

사울의 가족이 사용한 언어는 의심할 여지없이 ‘시리아-갈대아 어(語)’이었을 것이다. 이 언어는 ‘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 참고(1)-구약성서

유대인 손에 르네상스시기까지 머무름 →마소라(기원후 895년-1008년)→사해문서(1947년)→독일 슈파이어(Speyer)판(①1488판, ②1499년판)→랍비 성서(베니스, ①1516/17년판, ②1524/25년판: 다니엘 봄베르크<400여년간 표준판이었음>)→루터역 독일어 성서(구약)<1534년판>

‘70인역 그리스어역’(기원전 3세기,알렉산드리아), ‘타르굼’(아람어번역: 기원후 5세기경)

◇마소라: 팔레스타인 티베리아스 학파- ①기원후 895년(모쉐 벤 아쉐르)→②기원후 900년(아론 벤 오쉐 벤 아쉐르)→③기원후 1008년(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 참고(2)- 히브리어(語)

야곱과 그 가족들(기원전 1200년경 출애굽시 확실히 탄생[정립])→바빌론 중과 후기원전 6세기, 아람어에 밀림_왜냐 하면, 페르시아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국제적 공용어=국제적 통용어)이어서, 일반 백성이 사용했기 때문임[히브리어는, 유대교 예배시와 학자용어로만 생존함]→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들(‘70인역’,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로마제국(라틴어: 단, 예수와 사도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구어는, 아람어임)→타르굼(기원후 5세

기번역: 아람어번역)→중세(각국어-유럽), [예배어 및 학자들의 용어: 라틴어], [마소라학자들(히브리어): 기원후 600-800년]→시온주의운동(19세기)→이스라엘국(國)건국-[히브리어 공용어로 부활- 고대 구약 히브리어와 중세 히브리어(미쉬나, 탈무드, 미드라슈)의 융합]

※참고(3) 아람어(語)

셈족(族)일파[아라비아사막(沙漠)에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로 이주, 기원전 1500년이래]→고대언어들[아카디쉬(바빌론, 아시리아의 고대언어들, 시리아의 고대언어들, 팔레스타인언어(히브리어))을 아람어가 밀어냄[기원전 1천년 이래]→페르시아제국(帝國)(아카이메니드 왕조)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채택함[기원전 700년-기원전330년(왕조멸망)][키로스 왕(재위, 기원전 559-529년)때, 바빌론포수에서 유대인 귀환]→아랍, 이슬람제국(帝國)['아랍어'가 공용어=통용어임; 기원후 7세기이래]

※알파벳의 발전

페니키아문자[기원전 1300년]→그리스문자[기원전 500년]→로마문자[라틴어][기원전 100년]→후기 히브리어[기원후 100년=현재의 구약성서표기와 비슷함]

※신약성서

코덱스 바티카누스[기원후 4세기], 코덱스 시나이티쿠스[기원후 4세기],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기원후 5세기], 코덱스 에프래미 레스크뤼투스[기원후 5세기]→에라스무스[①1516년판, ②1519년판]→루터, 독일어번역[①1522년판(신약), ②1534년판(신·구약), ③개정판 계속됨(2017년판=종교개혁500주년기념판)]→츠방글리,독일어 번역[①1524년판(신약),②1531년판(신·구약),③1931년판(취리히 성서)]→독일 가톨릭성서[①1630년,카스파르 올렌베르크,②1838년, 알리올리,③1921년, 뢰쉬 헨네,④1924/26년판, 뢰

쉬 리슬러,⑤1958년, 지계]→1920년, 알브레히트, 독일어(신약)번역→멩에, 독일어번역[①1923년판(신약),②1926년판(신·구약)]

그러나, 젊은 사울이 헬라 세계의 문학적 및 철학적 문화를 전혀 모른 채, ‘그, 헬라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유·소년시절을 보냈을 리는 없다. ‘다소’는 ‘크세노폰’⁹⁾의 시대에도 그의 저작에서 보듯이 크고 번창하는 도시였다. 사울의 시대에 ‘다소’는 학문에 있어 세계의 수도 자리를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다투었다.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로 헬라(그리스)문화에 속하고 있었을까? 그의 ‘『신약성서』 중 서간’ 들에서는, ‘그리스 시인들’로부터의 세 개의 인용이 있다.

1)첫번째는, ‘길리기아’의 시인인 ‘아라터스’와 ‘길리기아’의 시인인 ‘클레안데스’의 시의 인용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아테네 설교’에 나온다 [행 17:28]

※가톨릭 영어성경(NAB) 각주에서는, 그중 먼저 나오는 것은 크눗소스의 에피메네데스(기원전 6세기)의 시로, 뒤에 나오는 것은 ‘솔리’의 아라터스(‘길리기아’의 시인, 기원전 3세기)의 시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음

2)두번째는, ‘메안더’의 ‘타이스’의 시에서의 인용이다. 이것은, [고전 15:33]에 나온다.

3)세번째는,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네데스’의 시에서의 인용인데, [딤후 1:10-12]에 나온다. [이 인용은, 가톨릭 영어성경(NAB)각주에서도, 기원전 6세기의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네데스’의 시에서의 인용이라고 쓰고 있다]

9) 크세노폰 Xenophon : 고대 그리스의 군인, 저작가(기원전 394-352년).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테네에서 태어나 나중에 추방됨. 저서로는 ‘아나바시스’, ‘그리스 역사’, ‘소크라테스의 추억’ 등이 있음

‘이, 세 개의 인용들’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리스문학 지식의 증거들일까? ‘르낭’은 이에 대하여, 「이것은 바울이 ①전해들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데에서나 또는 ②당시 일반인의 입에서 유행하던 통상적 격언들에서 바울이 인용했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르낭의 이 추측은 잘 해야 두 번째 인용과 세 번째 인용에는 들어맞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인용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아테네 설교(행 17:28)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두 시인들[아라타스와 클레안데스]’의 시들을 몰랐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바울같이 젊고 발랄하며, 배움에 열성적인 젊은이가 ‘다소’같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그곳에 차고 넘치는 ‘문학’세계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받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유다적’이었다. 그것은 ①그가 받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②사용된 ‘언어’에서도 그러했다. 아마도 바울은 일찍 ‘랍비’(유대의 율법학자=율법박사=유대교 시나고 그의 목사)직(職)에 예정되었을 것이다. 바울의 뛰어난 재능이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 랍비’직을 예정받게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후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방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랍비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육체노동의(=손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또한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독립성의 보장’과 ‘죄의 예방’에 대한 보장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격언에 따르면 ‘육체적 직업과 함께라면, 율법의 공부는 좋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율법 공부는 쓸모없고, 심지어 해로운 것이다’라고 있다]

사울의 부모는 사울을 위해서 그들이 살던 ‘길리가야’지역의 환경과 관련시켜서 ‘하나의 육체적 직업’, 즉 ‘천막공 직업’을 선택했다. [행 18:2-3]

이 직업은 무엇보다도 「‘길리기아’지역의 염소들의 (머리)털로 짠 거친 천을 만드는 기술」을 가리킨다. 그리고, [행 18:3]에서 사용된 이 단어[‘스케노포이오이’]는 ‘맞추어 만드는 일’[tailoring]보다는, ‘직물을 짜는 일’[‘weaving’]을 의미한다.

사울의 유·소년시절의 모든 환경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뒷날 그가 [갈 1:15]에서 한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바울의 ‘섭리적 사명’이 「복음을, 유대교의 포장에서 해방시켜, 그것을 ‘순수한 영성’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임이 맞다면,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바울에게는 ‘많은, 외관상 모순되는 자질들’의 통합이 필요했다. 즉 무엇보다도 바울은 1)유대교의 핵심에 있었어야 했다. 오직 이 조건하에서만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철저히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유대교에 의하여 주장된 구원의 수단의 무력함’을,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반면에 바울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의 특징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혐오감」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이 요구되었다.

즉 만일 바울이 헬레니즘문화의 위대한 중심지 중 하나인 ‘다소’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고대의 천재들의 걸작’인 ‘그리스문화’의 고귀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에 익숙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울이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었겠는가?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을 누린 것은 바울에게는 크게 유익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그 당시의 ‘세 가지 중요한 사회적 영역들’을 결합시킨 것이다. 즉, 「①유대교의 율법주의, ②그리스 문화, 그리고, ③로

마 시민권」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역들 간의 살아 있는 접촉점」이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의 대의(大義)를 1)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제국(帝國)의 법정과 2)예루살렘의 산헤드린(최고의회=최고법정)과 3)아테네의 ‘아레오파거스’(최고재판소)에서 설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의 특권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어릴 때 배운 ‘육체적 직업’(천막공)이 없었다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전 9:1-23]에 잘 나타나 있다.

어린 사울은 일찍 ‘다소’를 떠났음에 틀림없다. [행 22:3]에서 스스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 26:4-5]에서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자녀는 12세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축제에 동행하고, 그때 ‘율법의 자녀’가 된다. 사울도 그랬었고, 아마도 그때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부 가족과 함께 계속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생각된다. [행 23:13-22]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에서 그를 구해내는 기사가 있다.

바울은 ‘랍비의 교의공부’를 ‘신중하고 온건한’ ‘가말리엘’선생 문하에서 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힐렐’선생의 손자이다.[행 22:3] ‘가말리엘’선생은 ‘탈무드’에 따르면, ‘그리스문학’을 어떤 율법박사보다 잘 알았고, 그럼에도 ‘정통 유대교 교리’에 대한 그의 평판은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받았다. 젊은 사울은 ‘가말리엘’의 ‘지혜의 정신’과 ‘고결한 사려분별의 정신’하에 훈육받았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모세율법에 열렬한 학도’ 중 한 사람이었다. 사울은 ‘전통적 율법’을 성취함에 있어 모든 동문 제자들을 능가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갈 1:14]과 [빌 3:6]에 잘 나타나 있다.

‘율법’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의하여 정교화된 ‘도덕적 삶의 프로그램’은 사울의 ‘이상(理想)’이었고, 온 마음과 힘은 그 ‘이상의 실현’에 집중되었다. 그는 마치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던 청년과 같았다.[마 19:16-26]

즉 사울에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얻은 의(義)로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공로를 세우는 것’ [=자격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 [사울은 이런 공로에 의기양양해져서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랍비들의 위계질서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을 마음 속 깊이 소망했을 것이]다. 실로 [롬 10:2-3]의 탄식은 회심 후의 바울이 자신에 대해 한 탄식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의(義)」를 가리킨다.]

‘다음의 세 가지 타고 난 특성’은 좀처럼 함께 결합되기 어려운데 바울 안에서는 일찍부터 보였다.:

- 1) ‘지성의 박력’-이 점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능가한다.
- 2) ‘의지의 견고함’-이 점에서 바울은 아마도, 요한을 능가한다.
- 3) ‘감성의 선명함’-‘가장 깊고, 가장 섬세한 감성의 충만함’이 ‘두려움을 모르고 정복당하지 않는 의지’와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울은 외관상 ‘악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없다 [고후 10:10]. [행 14:12] 「‘리스트라’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신으로 부른 사실을 보는데, 이것, ‘바나바’의 ‘풍채(=키)’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갈 4:13]에서는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를 엄습한 질병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고, [고후 12:7]에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사탄의 하수인」과 싸우는 바울 사도를 본다. 흔히들 바울 사도가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라 해석하고, 심지어는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갈 4:13]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우연히 한 번 질병을 앓았던 사실’이 곧 ‘허약 체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후 12:7]도, 오히려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에게 계시된 비밀이 너무 엄청나므로 그 균형추로써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려는 유익한 목적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 수행 시에 잇따라 일어난 시련들」을 가리킨다고 봄이 더 좋다. 그리고 만일 바울 사도의 건강이, 그토록 심하게 나쁜 상태였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30년 동안이나 사도직 수행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유다인은 조혼을 한다. 그러면 사울은 그의 예루살렘 유학시에, 결혼을 했을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유세비오’는 긍정하고,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일반적으로 긍정한다. ‘하우스랏’은 [고전 7:7]을 근거로, 긍정한다. 즉 ‘하우스랏’은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독신자’라는 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홀아비’라는 설의 근거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전 7:7]에서 쓰인, 「‘은총의 선물’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자신은 그 ‘선물’ [=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한 표현은 확실히 바울 사도가 ‘홀아비’라기보다도 ‘미혼인 독신자’라는 것을 보다 더 뒷받침해 준다고 나 ‘고데’는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울이 그의 예루살렘 체류 동안 주 예수님을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가」하는 것이다.:

1) 사울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기간동안 공부하였다면, 사울이 주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지 않았다고 보기는 거의 어렵다.

2)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주 예수님을 실제로 그 지상 생애동안 본 사

실이 없다」는 증거로서 [고후 5:16]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고후 5:16]의 구절은 오히려 바울의 적대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의 ‘우쭐대는 것’에 대하여 빗대어 말한 것일 뿐이다. 즉 그 ‘바울의 적대자’들은 ‘주 예수와 그들 간의 개인적 관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의 ‘메시아 고대(苦待)’의 ‘육(肉)적 성격’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직접 주 예수님을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뵈었다」, 해석할 만한 「<신약성서>중의 바울 사도의 편지」는 없다. 그래서 ‘르낭’과 ‘만골트’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전도 때에 예루살렘에 없었고, 스데반의 순교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측한다. 설령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전도 때 예루살렘에 없었다 치더라도 독실한 유대교 신자라면 ‘축제’ 때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이다.

결국,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지상 생애시에 본 적이 없다」라고 추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울은 ‘공적 의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 나이 ‘30세’에 도달했다. 다른 동료제자들보다 훨씬 유대교에 열성이었고,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사울[그에게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놀라운 험잡’질이었다], 산헤드린은 「나사렛 이단(異端)자들을 체포·기소할(가능하다면, 근절할) 권한」을 부여했다.

사울은 ‘스데반의 살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신자들을 체포·기소한 뒤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출발했다. 사울은 산헤드린으로부터 다마스쿠스의 회당에서 심문관의 직책을 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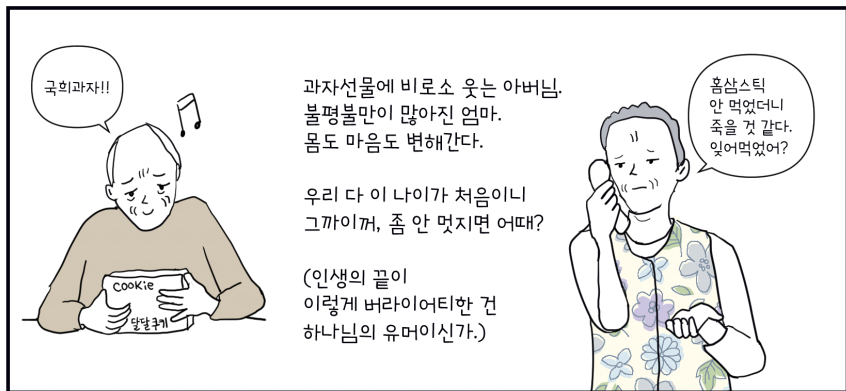
이제 ‘사울의 회심’이라는 사실에 도달했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하나님의 유머>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주에게는 천년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시 90:3-4)

나는 너의 편이다

최 제 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팝송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했고 Simon & Garfunkel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1970 년 발매되어 Billboard Hot 100 차트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및 베스트 컨템포러리 포크 솔로 퍼포먼스를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mon And Garfunkel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street	지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리니 나는 너의 편이다 오, 인생이 힘들어 올 때 그리고 친구들도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 주리라 네가 힘이 빠지고 지쳤을 때 네가 길거리를 헤메일 때

When evening falls so hard 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다가오는 밤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Oh,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오, 사방이 어둡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때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 주리라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 주리라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멋진 소녀여 항해하라, 곁에서 항해하라 너의 빛나는 때가 왔다 너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라 그 꿈들이 얼마나 눈부신지
Oh,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ease your mind	오, 네가 만일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는 바로 네 뒤에서 항해하고 있다 험한 물결위의 다리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리라 험한 물결위의 다리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리라

이 Bridge over troubled water 는 이성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어(主語)가 되는 특이한 노래입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힘한 세상살이를 평안히 건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친구마저 떠난 절망 상황에 처한 사람이 무난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연인일까요?

연인에게 기대야 한다면 더 힘들지는 않을까요? 이 노래를 작사한 Simon도 연가(戀歌)라고 보이기에는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히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한 방, Paul Simon은 원래부터 가스펠송을 많이 작사했답니다.

인생항로 중에 최악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겠지요.

친구들까지 모두 떠나는 상황이라면 연인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겠지요. 부모라면 일정기간 뒤를 받쳐 줄 수 있겠지만 자식이 장성해서는 거꾸로 부모가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니 여기서 “나”는 부모도 아닙니다. 무력화되지 않고 자식을 뒷바라지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위로를 해주려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왜냐면 친구도 찾을 수 없다고 가사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애인이나 친구라면 옆에서 동행할 것이고, 부모나 스승이나 선배라면 앞에서 끌어주는데 이 노래의 주체인 “나”는 “바로 뒤”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친구나 애인이나 부모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도 잡고, 어깨도 부딪히며, 이야기도 나누며 옆에 나란히 걷습니다. 당연히 뒤에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알지 못하고 눈앞의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느라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줄만 알고 외롭게 버티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내 뒤에서 동행하고 있으니 친구가 필요하면 돌아보라고 합니다.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다시 말해, 앞에 닥친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스승이나 부모도 아니고, 옆에서 동행하는 애인이나 친구도 아닙니다. 여기의 “나”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앞만 보느라고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살피보시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silver girl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먼저 Simon의 첫 부인 Peggy Harpper가 은발이었는데, 본인은 나이들어 보이는 은발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첫 부인인 Peggy를 위로하기 위해 이 가사를 썼다는 설(說)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능력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부인은 애초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겠지요.

또 다른 설은 Simon이 당시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마약주사를 은어로 Silver Girl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왔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흥미롭지만 문맥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떨어뜨리지요. 마약찬가가 되어버리니까요.

어쨌든 연인간의 사연으로 본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하다가 갑자기 Silver girl(멋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동행을 청하는 것도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멋진 소녀여 항해하라. 내 옆에서 항해하라. 너의 빛나는 때가 왔다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그리고 “눈부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야”라며 격려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곧 대박 날 거야”라며 억지 위안을 주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이 노래를 가스펠로 본다면 해석은 매우 명쾌해집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자식은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 못생긴 부분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치고 초라한 나의 영혼도 빛나고 사랑스러운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해석이 명쾌하지요?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니, 바로 빛나는 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를 귀하고 빛나게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초라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Silver girl이고 이는 의로운 영혼입니다. 우리가 과연 의로운 영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Silver girl(man)이 맞는 것입니다.

I'll be a bridge라고 하지 않고 왜 I'll Lay me down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I'll Lay me down은 다리가 되겠다는 뜻에 더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험한 물결 위로 나를 내려놓을 테니 나를 밟고 편히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다고 하여도 다리 아래의 물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우리는 세상의 현실이 냉혹해도 다리 아래의 물결을 보듯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공간이 비었어도 걱정을 안 한다든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태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범해서가 아니라 풍파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나는 너의 편이니 나를 찾아 너의 짐을 맡겨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 가사의 네 가지 key sentences가 숨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I'm on your side

짐을 내게 맡겨라 I'll take your part

나를 찾아라 When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나와 동행하여 하늘나라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하나님은 나를 씻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내 손을 잡

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장래에 다가올지 모를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다정하실까요? 하늘의 해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공정하신 분인데, 어째 내게만 유독 더 다정한 아빠가 되셨을까요?

분명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노래를 가스펠로 보는 대략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따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Silver girl(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나는 너의 편이다[I’m on your side]”가 주는 오늘의 문제 “왜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일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正義)에 대하여 짚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데, 쉽게 말하면, 정의(正義)란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정의롭게 운영되도록 디자인된 세상이 아닙니다.

현세는 애초부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디자인된 세상입니다. 정의구현은 우리의 소망속에만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의구현의 기치를 든 집단이나 국가치고 성공한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나, 베트남전쟁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만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3천여 명을 죽인 911테러도 정의

구현, ISIS나 탈레반의 민간인 학살도 정의구현이랍니다. 죄 없는 선교사를 죽이며 정의구현 했다고 환호하는 것도 우리는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앓던 종업원이

“핵무기 개발로 북조선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며 작은 조선이 세계에 정의를 실현해서 너무나 벅차오릅네다.”

하며 자랑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정의가 뭔지... 하여튼 많은 사람이 이런 현실에 좌절하여 현실에 신은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正義)란 무엇일까요? 요즘 hot한 구글의 AI에게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거룩하며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고 옳지 않은 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롭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왜 하나님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작동하는 방식을 항상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또한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과 정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G. Bard]”

하나님의 정의(正義)에 대한 놀라운 정의(定義)입니다. 현대기술이 참 무서워지지요? 정의란 모든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률에 따라 대우받고 아무도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스스로 이해하면서 남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하고 정의를 찾습니다만, 모두가 죄인인 우리의 죄가 전부 까발려지고 벌을 받아야 비로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하나님처럼 모든 죄인을 서로 용서해야 오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정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정의구현은 나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제 멋인데, 내가 그 대상이 되든지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쾌한 카타르시스(Katharsis)는 없고 고민만 있겠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 7-23~24]

누가 감히 바울 선생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있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진짜 공정한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정의는 이 세상에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대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죄를 드러내고 죄 지은 자가 공평하게 벌을 받는 정의의 구현만이 그나마 상상이 됩니다만

만일 바울 선생이 죄라고 괴로워하며 애매하게 공개한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바울 선생마저도 위선자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더 소망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용서하는 세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공정하게 바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절대 용서하기 힘든 죄인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 공평하게 용서하는 정의 또한 구현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인공지능 Bard는 정의란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다”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했나 봅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벌하실 수 있지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백 점짜리 답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아는 진실은 이 해석과 결이 살짝 다릅니다. 그것이 이 노래를 선택하여 감동을 소개하는 핵심이유 중의 하나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동행하라. 그러면 멋진(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 받고 있는 자가 깨끗한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 3-28]고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욕망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정의의 실체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은

세파에 시달리는 나의 영혼은 의로운 영혼(Silver girl)이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I'm on your side)라고 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Bard가 말한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구절절이 맞지만, 우리의 아는 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이 구글의 인공지능 Bard의 “하나님의 정의

(正義)”에 대한 정의(定義)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Silver Girl (멋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보다 심성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기에도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될 만큼 깨끗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큼 능력이 있나요? 찬스도 통하지 않고 흥정도 되지 않는 분이 어째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 선택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신 이유를 아실 뿐이고, 우리에게는 이유를 모르고 받은 크나큰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의 실마리가 요한복음에 나와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 1-10~13]”

제가 너무 좋아해서 녹슨 머리로도 외우려 애쓰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네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장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또는 마태복음 23장 9절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고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라는 것이 같은 뜻인지는 잘 모르는지라, 먼저 고민하신 분들로부터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정의 이전에 황송하게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알고 보니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금수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I'm on your side]. 얼마나 고맙고 마음 든든한 말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아무리 모자라도 내 자식은 사랑스럽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부드럽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금수저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유산으로 받았으니, 고맙게도 이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마쳤고 여유롭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후 세상까지 무조건 보장된다면, 하나님의 정의, 공정한 심판은 없는 것이겠지요.

아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달란트를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말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지요. 노력 없이 쉽게 받았다고 소홀히 하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금수저라도 피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달란트를 맡긴 종들의 비유로 경고하신 것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 금수저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 그것은 믿는 자의 의무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다니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한 나라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듯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원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받은 달란트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갚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조 규 철

<열왕기 상 12:27~29, 표준 새번역>

27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8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29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재판관)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왕정시대를 맞이합니다. 초대 왕 사울 40년, 2대 왕 다윗 40년, 3대왕 솔로몬 40년, 총 120년은 통일 왕국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왕으로서 남쪽을 지배하고, 북쪽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지배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열 지파 백성들이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훼신앙의 종교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변색(변질)시

킵니다.

1. 열 지파 땅의 최 북쪽에 있는 단과 최 남쪽에 있는 벰엘에 신당을 짓고 금송아지 신상을 두 개 만들어서 각 신당에 하나씩 세운 후에 이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2.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 열 지파 땅안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남쪽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3. 율법에 정해진 절기를 바꿔서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만들어 지키게 합니다.

이 정도이면 사이비 또는 이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 제 2계명, 나를 섬긴답시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보면, 근본이 없는 거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정한 절기 8월 15일에 벰엘에 있는 신당에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하나님의 사람)가 와서 크게 외칩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야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란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두고 보아라.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죽여

그 뼈를 네 위에서 태우리라.

내 말이 야훼께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 주어졌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리라.”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놈을 잡

아라.” 하면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민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 제단이 갈라졌고,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태도를 바꾸어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선지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야훼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선지자는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벧엘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벧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 날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여로보암왕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있었던 일 모두를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는 아들에게 유다의 선지자가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를 묻은 다음에 나귀를 타고 뒤쫓아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벧엘의 늙은 예언자 ;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다의 선지자 ; “그렇습니다.”

벧엘의 늙은 예언자 ;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유다의 선지자 :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벤엘의 늙은 예언자 :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은 유다의 선지자(하나님의 사람)는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야훼의 말씀이 유다의 선지자(하나님의 사람)를 데려온 벤엘의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벤엘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너는 야훼의 말씀을 어기고, 네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주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러므로 네 주검은 네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후에 유다의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그는 틀림없이 주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그 늙은 예언자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습니다. 나

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유다의 선지자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 와서, 곡을 한 뒤에 자기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소감>

1.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지도자가 그 모양이고, 종교지도자도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었으니 그 백성들의 신앙상태가 어떠한지는 불을 보듯 뻔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2.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묘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교사, 목사)가 되지 말라. 남을 죽인다.

거짓 선지자(교사, 목사)에게 속지 말라. 내가 죽는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딤후3:14)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개역개정)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공동번역)

2023 여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3년 8월 5일(토) 15시-18시,
8월 6일(일) 09시-15시
2. 장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8 여성플라자 시청각실(4층)
3.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왼쪽골목 50m
차로 오시는 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가비 : 1) 1인 40,000원 : 대관료, 교재, 식사 2회
(5일 저녁 식사는 식당 ‘초록애’, 6일 점심은 도시락 제공)
2) 숙박을 원하시는 분은 1인 40,000원 추가
(희망자는 예약을 위해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5. 참가 신청 : 7월 15일까지
 - 각 집회 대표에게 말씀해주시거나,
 - 운영자 손현섭(010-2060-5534)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6. 참가비 수납
 - 미리 입금 : 농협 352-1396-3854-73 한정주
 - 현장에서 내셔도 됩니다.
7. 주의 사항 :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개인 컵 사용도 권장합니다.

8. 일정표

강의 40분, 휴식시간 10분으로 운영합니다.

일자	구분	강사
8.5 (토) 오후	15:00-15:40	진영선
	15:50-16:30	손문일
	16:40-17:20	최정일
	17:30-18:10	조득환
	18:10	저녁 식사 후 각자 숙소로 (식사 장소 : 근처 식당 '초록애')
8.6 (일)	9:00-9:40	김은정
	9:50-10:30	장문강
	10:40-11:20	배지현
	11:30-12:10	김철웅
	12:10-12:20	신우회
	12:20-13:10	점심 식사(도시락)
	13:10-15:00	감화회 - 참가자 모두 5분 발언 - 한병덕 선생 강평(20분)

9. 강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집회는 철저히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집회입니다. 정치적 의견은 호불호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을 지양해주십시오.

2) 원고 마감은 7월 25일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차질없이 교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낼 곳 : 손현섭 이메일 sonhs0105@hanmail.net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02호

2023년 7월

인	쇄	2023년	7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국 민 은 행
668402-04-021247

예금주 : 손 현 섭